

2022년 2월 기도제목

지난 해 추수감사절부터 교회에서 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연말까지 조금씩이나마 모아서 가장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의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스름돈으로 생긴 동전들을 가져와 저금통에 넣으면서 온 성도들이 힘껏 참여해주었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 작년에 소천했던 굴텐의 며느리인 늘단굴에게 주기로 결정해서 저금통을 통채로 주었습니다. 모든 집안 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귀중만 들었던, 거리에서 만나서 결혼한 남편에게 사랑은 커녕 학대만 받으면서도 딸 하나를 위해 눈물로 살아가던 늘단굴이 뜻밖의 선물인 저금통을 받아두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결석한 날들이 더 많아서 글을 읽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돈도 셀 줄을 모릅니다. 남편이나 나도 글을 몰라 내 딸에게 나와 같은 막막한 삶을 물려줄 것 같아서 정말 두렵습니다.”

늘단굴의 눈물을 보았던 '조이' 사역자(지난 여름에 이스탄불에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산돌 사역자의 부인)가 그 눈물과 절박함을 보고 그에게 글을 깨우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선 것이었습니다. 알파벳 포스터와 학용품 사주고, 매주 3회 교회에서 만나서 1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늘단굴이 숙제도 열심히 해오며 노력하고 있는데 글을 깨우치려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리고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서 기꺼이 섬기고 있는 조이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해주십시오.

1. 아다나 프나르 교회

- 도나와 반우가 이곳에 오면서 아래층 4살백이 굴텐(늘단굴의 딸)을 예배에 오도록 초청하고 어린이 반이 생기고 어린이 방이 단장되었습니다. 장난감과 학용품과 어린이 책들을 준비하고 벽에 큰 종이를 붙여 마음껏 색칠하게 하고 풍선을 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다 함께 드린 후에 엄마 중에 한사람이 어린이 반을 담당하는데 11살백이 니카와 오즐렘도 그들과 하나되어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어른 예배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교회에 오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쑥쑥 잘 자라도록...

- 저희들의 은퇴 후에 교회를 맡을 책임자를 보내주시도록... 교회와 개인의 간절한 기도제목을 위해 2월 1일 부터 21일 성도들과 작정 기도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그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수 있도록...

- 2022년 7월 말까지 6개월 그회 렌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성도들의 개인 그도제목

- **말라חת, 잔:** 말라חת이 그도의 자리에 오고 있고 부르짖고 있으며 밝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잔도 일주일에 며칠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 **수다베:** 이번주, 미국 시애틀에 사는 아들이 밤에 총으로 위협받고 가방을 뺏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도의 용사로 일어나도록...

- **베히에:** 아직도 걷는게 불편해서 오배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된 오배를 사모하며 현장 오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 **솔탄:** 다음 달에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 **홀리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금식하던 날, 하나님께서 또 한번의 선명한 꿈을 꾸게 하시고 꿈 가운데서 기름이 없어서 요리를 못하는데 5리터 기름통을 5개나 선물해주시고 목에 금메달을 달아주시고 친정 엄마가 천국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시며,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며, 너무나 따뜻하게 위로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다고 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딸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셔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 **굴텐의 2 아들:** 집이 팔려 새집으로 이사하도록... 둘째 아들인 우르가 일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직장을 찾을 수 있기를...

- **갈립, 시난, 울켈:** 울켈이 오배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갈립과 씨난 형제도 오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 **산돌, 조이 사역자 가정:** 그회에서 보고 듣고 행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3.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9만명을 넘어가고 있고, 물가가 너무 올라 마켓의 계산대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속히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4. 전도

너무 추운 날씨에 공원에 나가 전도는 못하고 있지만 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끔 주일 오배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도록...

5. 아다나 그도의 집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두려움에 싸여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한 이란 자매가 수다베의 소개로 7도회에 와서 7도의 힘으로 담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7도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혼을 살리는 모임이 되기를..

6.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저희 부부가 7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딸(수잔)네 온 가족이 오미크론 감염에서 회복되어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8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아들(스티븐)의 가정에는 올해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김샘물, 하나 드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 9)